“신나는 방학, 어디로 갈까?”
“미술관·박물관에서 놀아요!”

모처럼 만의 휴가, 밀려드는 인파와 바가지 요금에 지쳤다면 가까운 미술관, 박물관에서 예술이 어우러진 알찬 여름휴가를 만들어보자.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놀면서 쉽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 여름방학 현장학습으로도 좋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오는 8월30일까지 아이들이 동화책 속의 원화를 감상하고, 판화를 찍으며 놀 수 있는 ‘신나는 동화 탐험대-신화그립’전을 연다. 동화 원화 40점, 아트프린트 12점을 선보이고 ‘달님안녕’ ‘바르바르 이발사’ ‘수호의 하얀 말’ 등 동화책 260여권을 볼 수 있는 어린이동화책방도 운영한다. ‘구리랑 구라랑 놀자’ ‘목욕은 즐거워’ 동화 작품을 책방 벽면에 프린트해 전시하고, 동화 판화를 찍어 보는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222-3574.

▲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오는 10월25일까지 폐품으로 만든 멋진 작품을 선보이는 ‘정크아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주복동, 김일근, 이호동씨가 참여해 20여점의 재미난 작품을 선보인다.

강진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씨는 예초기 엔진, 낡은 농기계 부품 등 폐농기계 부품으로 만든 다양한 로봇을 전시한다. 버려진 농기계에 생명을 불어 넣은 이들 작품은 환경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준다. 문의 062-510-0142.

▲무돌아트 컨퍼니=8월31일까지 여름방학 미술 체험 프로그램인 ‘갤러리에서 놀자’를 연다. 아이들이 직접 전통부채, 투명우산, 반소매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광희(8월10일)씨가 일일작가로 참여해 부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흥미로운 민화 이야기도 들려준다. 재료비 5천~7천원. 문의 062-234-2729.

30일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무돌아트 컨퍼니’ 전시장에서 아이들이 반소매 티셔츠(왼쪽)와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무돌아트 컨퍼니 제공〉

판화 찍고 토기 굽고 우주 여행까지
예술과 함께하면 현장 학습 저절로

▲국립광주박물관=오는 8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노는 ‘박물관 속 여름 이야기-즐거운 바람, 바람개비’ 강좌를 연다. 초등학생 대상인 이번 강좌는 박물관 학예사들이 재미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무와 대나무로 바람개비를 만드는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재료비 3천원.

광주박물관은 또 8월8일, 22일에 국내 칠문화를 소개하고, 나전칠기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천년의 빛 나전칠기’ 강좌도 함께 연다. 재료비 4천원. 문의 062-570-7053.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여름방학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선사체험장에서 ‘2009 선사시대 체험’ 행사를 갖는다. 선사체험은 고인돌을 만들었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바탕으로 의식주 재현과 도구 제작 등으로 이뤄진다. 연구소 연구원들과 고인돌 해설사의 지도로 민무늬토기 굽기, 청동기 만들기, 곡식 이삭따기, 암각화 탁본하기 등 행사도 열린다. 참가비 3천원. 문의 061-374-9202.

이 밖에 고흥 남포미술관은 8월23일까지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별이 된 화가 강용대-우주를 거닐다’전을 연다.

지난 2005년 폐교가 된 영남중학교 부지에 들어 선 남포미술관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렌션을 운영하고 있어 복잡한 휴양지 숙소를 벗어나 한적하게 숙박을 할 수도 있다. 문의 061-832-0003.

또 함평 잠월미술관은 8월30일까지 큐레이터의 지도로 부채와 도자기를 만드는 ‘여름방학 체험 학습’을 마련한다. 문의 061-322-67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행지에서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

25명 시인·소설가 글 모아
‘작가들의 여행 편지’ 출간

여행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스물다섯 명의 시인, 소설가들이 여행지의 길 위에서, 또는 여행을 준비하거나 추억하면서 쓴 편지들을 묶은 ‘작가들의 여행편지’(예스위캔 펴냄)가 출간됐다.

‘작가들의 연애편지’ ‘작가들의 우정편지’에 이은 작가들의 서간집 시리즈 세 번째로 ‘편지 쓰는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끌고 있는 소설가 김다은씨와 함정임씨가 함께 엮었다.

일상의 휴식을 찾기 위한 여행, 문학행사 참석을 위한 여행, 또는 옛 애인의 결혼식에 불참할 핑계를 만들기 위한 여행 등 제 각각의 목적을 갖고 떠난 여행에서 작가들은 일상에서 놓쳤던 것들을 새삼 깨닫는다.

박형준 시인은 피서철을 넘긴 한적한 바닷가에서 미지의 대상을 향한 편지를 쓴다.

“여행이란 우리의 삶을 되비춰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여행에 무슨 결론이 있겠으며, 거기에서 우리의 일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진기한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샘을 만난다면, 그 희망과 조우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요.”(32~33쪽)

소설가 서영은씨는 시리아 사막을 건너며 먼저 세상을 뜬 남편 김동리에게 편지를 띄운다.

“저는 일찍이 제 속에 낙타를 길러 왔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당신이 제게 입힌 상처 마디마디에서 우뚝 몸을 일으킨 그 동물이, 이제야 자기의 고향에 다다랐습니다.”(72쪽)

소설가 권지예씨는 작가 자신일지도 모르는 ‘실의에 찬 K’에게 히말라야 설산을 걸으며 인생을 보았던 경험을 들려준다.

“K야, 살다 보면 간혹 저 자신을 택시미터기 새로 꺾듯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지. 지금의 K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K야, 과감히 꺾고 자신을 다른 데로 옮겨라. 새봄을 맞으려면 오히려 겨울로 너를 데려가야 한다. 진정한 여행이란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는 것. ‘내 안의 봄꽃’을 피워 내는 것 아닐까?”(1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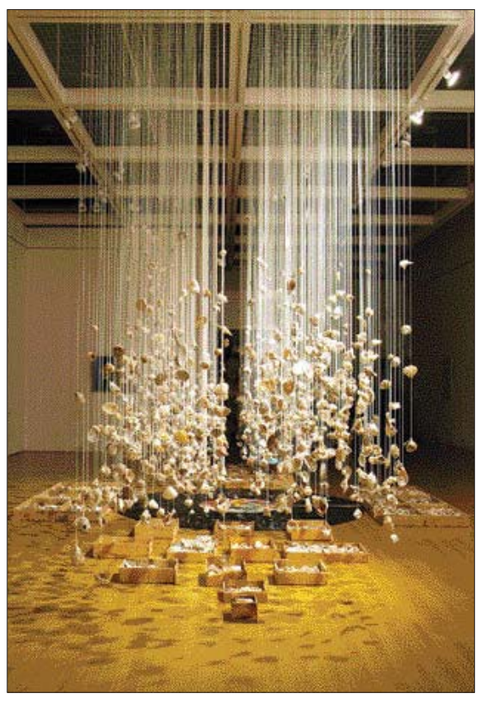
이외에도 가슴을 울리는 다양한 사연의 정겨운 편지들이 가득하다.

김다은씨는 서문에서 “작가들의 서간집 시리즈는 편지 쓰는 정서와 습관을 독자들에게 되찾아 주고, 우리 문단에 없는 편지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앞으로 엮을 책은 ‘작가들의 연적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꿈&밥’ 초대전·‘생태-문명이 되어버린 나무’전

광주롯데화랑 8월1~11일



문학열 작 ‘공명과 순환’

광주롯데화랑은 오는 8월1일~11일 창작 공간 ‘꿈&밥’ 초대전과 체험 프로그램이 곁들어진 ‘생태-문명이 되어버린 나무’전을 갖는다.

전시에는 김재성, 문학열, 정이석, 김광철, 이채연, 장유심, 임영자, 박미선, 김하늘씨 등 ‘꿈&밥’ 작가들과 최재덕, 김성우씨 등 외부작가들이 참가한다.

또 지난 5월 각화문화의 집에서 열린 ‘무지개생태예술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담양 관방제림과 황룡강 일대를 탐방한 모습을 담은 생태 영상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크아트 공예체험’ ‘식물상자 만들기’ ‘점핑클레이’ 등도 마련된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어린이박물관 8월 4일 정식 출범

국립어린이박물관(관장 박호원)이 다음 달 4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어린이박물관은 2003년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섬외교육과 소속 어린이민속박물관으로 운영되다가 국립민속박물관 산하에 정식 직제를 갖추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지만, 정식 직제를 갖춘 국립기관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미술관서 음악회 열어요” ▶광주시립미술관 8월 5일 오후 7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8월5일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구수한 입담으로 국악을 소개하는 지역의 대표명창 윤진철(사진)씨와 ‘윤진철국악예술단원’을 초대해 추임새와 민요 배우기, 판소리, 남도민요 공연 등 다양한 우리 음악을 선사한다.

또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 소장품’전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매주 수요일을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